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브롱스 한의원(시호) 한의사 박 다니엘 각종영양제, 한약, 침(체질맥) 908 347-1933, 2303 908 233-0138 (H)
흥표 흥침대 장수들침대 NJ미건의료기 리치필드 한마트 내 (201)945-9944(B)527-8040(C)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Fax (203) 629-9073 각종 보험, 투자	그레이스 여성복, 남성복 (과도회집 옆) (718) 461-5545(B) (917) 572-1800(C)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뉴욕정비(자동차) 2801 Webster Ave (718) 295-3252
통증 증세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Pl.Bayside,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대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 피 어 스 테이트 빌딩 #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 (212) 947-8382(B)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원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서 봉권 합동 법률 사무소 사고, 상해 전문 (718) 461-3131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게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 철 공인 회계사 Young&Jullan, LLC 150-05 노던(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핑크 미용실 매주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NY 11354
브롱스소망이발관 고향집 건너편 주차장 완비 주일은 쉽니다 (718)329-1678	정일현(스테판노)치과 골교비치과대학교 졸업 엘름hurst(시립병원 앞) (718)426-4343,(주자만비) 베이사이드718-352-3434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제1654호

2011,3,20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오 17, 1 - 9)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사순 제2주일

ㄹ 입당송

(시편 27(26), 8.9)

주님, 제 마음 기도하며 당신 얼굴 그렸나이다. 주님,
당신 얼굴 찾고 있사오니,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대영광송 없음>

ㄹ 제1독서

(하느님 백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소명)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2,1-4)

그 무렵 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2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33(32), 4-5. 18-19. 20과 22(● 22))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1.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2.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3.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ㄹ 제2독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1,8-10)

사랑하는 그대여, 8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9 하느님께서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ㄹ 복 음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9)

그때에 1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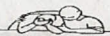
α 영성체송 (마태 17,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3/20 8시	김 철중	윤 광석	윤 기애	김 미수
11시	노 경수	한 광희	한 소은	윤 정숙
3/27 8시	이 상자	함 봉국	함 경옥	박 미순
11시	이 회양	박 증환	박 정이	김 여경

복 사 : 이 종재 & 안 정훈 이다운 & 이재영
 봉헌자 : 정철수&신홍원 가족 다음주 : 장윤희&유휴현 가족
 헌금봉사 : 자비의 모후 Pr 다음주 : 정의의 거울 Pr
 운전봉사 : 조 영미 다음주 : 방 문덕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민스테파노[경구](생미사) : 조로물로[강희], 이데니스[창섭] 봉헌
 박모니카, 테레사, 안나, 사라, 이반, 비트리스. 로렌, 맥스로빈,
 캐리, 엘리자벳(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양윤이(병자미사) : 윤승중 봉헌
 서베로니카[옥주](연미사) : 이줄리아 봉헌
 김베드로[완배](연미사) : 정바오로[철수], 추바오로[성태]
 김해리[형남], 박바오로[증환], 최바오로[충규] 가족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다니엘, 박아네스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가족봉헌
 불쌍한 연옥영혼을 위하여(연미사) : 한프란치스카[희자] 봉헌
 연령회에서 봉헌(연미사) : 조병운, 진한순, 이옥분, 이남주, 홍인선
 김첼리스터[석환], 이맥틸다[분조], 석요셉[금출]
 이안젤라[귀남], 김루시아[정자]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을 위하여

성가

입당 : 골고타 언덕 (성가 118)
 봉헌 : 주께 드리네 (성가214)
 성제 : 천사의 양식 (성가 188)
 천사의 양식 (성가 187)
 파견 : 십자가에 가까이 (성가490)



교회 소식

※ 본당을 활성화 합시다. (제2단계)

- (1) 아침, 저녁기도를 가족이 함께합시다.
- (2) 주위에 냉담 자를 봉헌합시다.
- (3) 경건하게 미사에 참여합시다.(마침 강복을 받고 나갑시다)
 (남자는 정장, 여자는 미사 보를 쓰시기 바랍니다)

(1) 사순절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단식하시면서 공생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식과 극기, 선행
 으로 부활을 준비합시다.

※ 성금요일에 단식, 매주금요일 금욕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저녁8시30분)

(2) 성요셉 성월

3월은 성요셉 성월입니다. 성요셉 성인의 신앙을 본받아 가정의 서로
 희생하며 성가정을 만들도록 합시다. 저녁기도후(기도서 30P)를 바칩시다.

(3) 주일학교 사순절피정

주일학교 사순절피정이 4월3일(주일) Marycrest Convent(몬로에 수도원)
 에서(미사2시 PM) 참가비는 10불(점심식대)이며 해당 학부모의 차량이
 필요합니다.(도착은 아침 9시30분 까지)

(4) 성경 완독자(2010년)

성서 완독자 (김신자(카타리나) 한경수(바오로) 우희정(아네스)
 외 시상식이 오늘(주일) 11시 미사 중 에 있습니다.

(5) 교구청 기금(Stewardship Appeal 2011)

교구 200주년 기금이 2010년에 끝나고 2011년부터 교구청 기금
 (Stewardship Appeal) 이 시작합니다. 교구청 운영기금으로 1개월분
 교무금을 더 내시면 됩니다.(직접우송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십시오)

(6) 본당사목위원 및 단체장피정

사목위원 및 단체장 피정이 메리놀(Maryknoll) 피정의 집에서
 4월3일(주일)(아침9시30분-오후5시) 하루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피정이므로 모두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7) 레지오 마리아 아치애스 행사

레지오마리아 아치애스 행사가 다음주27일(주일) 11시 미사 후 1시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8) 본당 모임

- * 울뜨레야 월례회의가 오늘(주일) 11시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 중부브롱스 구역회가 오늘(주일) 저녁5시 지희남(레오) (347)323-5808 구역장님 댁에서 있습니다.
- * 동부브롱스구역회가 오늘(주일) 11시 미사후 센타202호실에서있습니다.
- * 동부웨체스터 구역회가 오늘(주일) 저녁 6시 최 필(안드레아) (914)346-8722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 * 뉴저지구역회가 다음주27일(주일) 오후4시 공은영[밀다] (646)515-3156 구역장님 댁에서 있습니다.
- * 서부브롱스 및 맨하탄 구역모임이 다음주27일(주일)(부활성가연습) 오후2시 센타 202호에서 있습니다.
- * 연례회모임이 다음주27일(주일) 11시미사후 센타202호실에서 있습니다.
- * 한아름상품권을 구입해서사용(5%는빈센트회에돌아옴) 하는 것은 우리 집 식탁에 어려운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품권은 사무실이나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신자] 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 이번달(3월) 커피및 친교실청소는 서부브롱스및 맨하탄 구역입니다. 다음달(4월)은 동부 웨체스터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1,834.00

교육헌금 : \$ 5,064.00 꽃봉헌 : 모창균, 조테글라[윤정]

교무금 : \$ 1,730.00

원분실(1-5)	정철수(1-3)	안길원(3-4)	황옥정(2-4)
정순조(4-6)	이강민(1-3)	오은자(1-6)	황순희(2-4)
김동현(1-3)	박효순(1-3)	황보열(3)	이현규(3-4)
김원식(2)	추인숙(3-4)	박정길(1-6)	서명희(3-4)

Stewardship Appeal: \$770.00

누계 : \$3,950.00

정철수	정순조	이강민	김형남	조용국
조현중	김동현	박효순	황보열	이현규
정진웅	추인숙	박정길		

않는것, 하는 것

가톨릭 신자들은 사순절이 되면 무슨 극기, 희생을 해야되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을 한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한편 그렇게 하므로 서 나 자신 위로를 받는다. 주위에서 보면 담배나 좋아하는 커피를 끊는다는 사람도 있고, 술을 안 마시겠다는 사람도 있다. 내 친구 하나는 안보면 못 견디는 드라마를 사순절 동안에는 안 본다 고 한다. 그런데 사순절은 회개의 시기라는 말을 한다. 특별히 더 자신의 죄,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않으려고 노력하는 시기라는 말이다. 그리고 보면 희생극기를 하는 목적은 나의 죄, 잘못에 대한 보석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한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순절은 죄를 포기하는 시기라고 하셨다. 죄를 짓지 않는 시기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마태 5,13) 하고 말씀하셨다. 소금은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다. 소금이라고 하면 짠맛만을 연상하지만, 정말이지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므로 서 그 음식이 얼마나 좋은 맛을 내는가? 내 친구 하나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가 음식에 소금을 되도록 넣지 말고 아주 싱겁게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음식에 소금을 거의 넣지 않고 싱겁게 해서 먹었는데 음식이 어찌나 맛이 없는지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곰탕에다 소금을 약간 뿌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은가? 아무리 맛이 있는 곰탕이라고 해도 소금을 넣지 않고 그냥 먹으라고 하면 아무도 못 먹을 것 같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웃에게 삶에 맛을 내는 좋은 양념이 되라는...주위에서 보면 힘들이지 않고,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주위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언젠가 친분이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일어서는데 그 집 부인이 자그마한 쇼팽 백을 나에게 건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시래기 국을 잘 먹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 조금 쪼으니 가져가서 내일 먹으라고 한다. 나는 그 시래기 국을 가져다 다음날 먹으면서 그녀의 인정에 고소하고, 단 그야말로 깨소금 같은 맛을 느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소금 몇 알이 음식 맛을 좋게 내듯이 그렇게 그들의 삶에 좋은 맛을 내게 한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무슨 극기도 좋지만, 그 보다는 나 자신 주위에 소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소금이 크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뭐 그리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음식 맛을 좋게 내듯이 나도 큰 힘 안 드리고 주위, 나의 이웃들이 삶에 맛을 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조금이나마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어찌면 40일 동안 그렇게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계속해서 소금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 몽은